‘보험금 한탕’ 나이롱 환자들 수두룩

上 사무장 한방병원 가보니
中 우후죽순 사무장 한방병원
下 불법 뿌리 뽑으려면

환자복 입고 버젓이 외출·외박
2년새 병원주인 3번 바뀌기도
전과자 양산에 보험재정 손실

“환자복 입은 환자들이 버젓이 승용차 타고 외출하는가 하면, 밤에는 환자들이 술병을 들고 오가더니 결국 병원마다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더라고요.”

29일 광주 A한방병원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은 “2년 새 저기 한방병원 주인이 3번 바뀌었다”면서 “동네 사람들도 아프면 저 병원에는 가질 않는데, 외지 사람들만 가는 것 같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가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지목해 찾아간 A병원은 건물 외벽에 ‘10월 1일자로 병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병원 건물에는 지난 여름만 해도 광주D한방병원이라는 병원이 영업 중이었지만 보험사기 행각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찾아간 광주 B한방병원 주변은 아예 이 한방병원 환자들의 놀이터 같았다. 환자복을 입고서 병원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띄었다.

환자복을 입은 채로 승용차를 몰고 어디론가 나서는 환자들의 모습이 꾸준히 목격됐다. 그런데도 환자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병원 측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병원 이름과 주인이 자주 바뀌고,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의 외출·외박이나 흡연·음주 행위를 문제삼지 않고,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닌데도 입원을 권하고,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묻고….

광주지역 일부 한방병원은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속칭 ‘불법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인 특징을 대부분 보여줬다. 현행법상 병원 운영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 보유자만이 할 수 있지만, 의료재단(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 형식을 갖추면 의사면허 없이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더 쉽다. 개원 자본금이 일반병원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보험료를 축내는가 하면 짧은 기간 수백여명의 보험사기 전과자를 양산해 낸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광주서부경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 N병원과 M병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과 1년 남짓한 운영 과정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꾐에 넘어간 주부, 회사원, 학생 등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보험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실제로는 성형수술을 했지만, ‘등산하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식으로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써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결과는 ‘보험사기 전과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방병원도 마찬가지다. 일반 병원이 건강검진, 성형, 미용 등으로 보험사기를 꾸민다면, 한방병원은 도수치료(물리치료)를 이용해 부당하게 의료실손보험을 타내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재정손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화재보험사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지역대학에서 한의사들이 매년 배출되지만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는데다, 한방병원 개설 비용도 양방에 비해 적어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시민들로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당장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의료사고 위험은 물론 자칫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헬기야 고마워~ 등산객 긴급 호송

광주시소방항공대와 119구조대 대원들이 29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중봉에서 호흡 곤란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등산객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헬기에 태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눔의 한가위 넉넉했다

광주 외국인들 흥겨운 한마당 잔치…팽목항엔 추모 발길

추석을 맞아 광주지역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눠먹으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덜었다.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 개소 후 첫 추석을 맞은 광주지역 고려인들은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제2어린이공원에서 ‘고려인마을 추석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참석해 송편 등 음식을 나눠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후원자들이 지원한 선물상자 500여개를 경품으로 준비해 동포들에게 선물했다.

광주 광산구와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는 앞서 26~28일 광산구 장록동 월전공원과 평동 용동축구장에서 ‘제7회 외국인 근로자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캄보디아 등 12개국 출신 36개팀이 참여했다.

앞서 26일에는 광주YMCA에서 ‘추석맞이 문화교류 및 방글라데시인 모임’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찾아온 추석에도 불구하고 진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온정도 이어졌다.

연휴 기간 내내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으며, 일부 공무원은 실종자 가족을 위해 연휴에 맞춰 팽목항 파견근무를 자청하기도 했다.

앞서 26일에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 50여명이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문화공연과 추모제를 열었고, 25일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팽목항을 찾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추석 연휴 광주·전남 교통사고 120건

4명 숨지고 192명 부상
화재·안전사고도 잇따라

추석 연휴(26~29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교통·화재·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11시48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진입로(화순~광주대 방면)에서 승용차 8대가 추돌, 운전자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3시32분께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 시립묘지 인근 도로에서 김모(65)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공원관리동 옆 경계석을 들이받아 일가족 7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는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학강교 교차로에서 조모(여·48)씨가 몰던 코란도와 김모(60)씨의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 조씨가 숨졌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나흘간 광주·전남에서 1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92명이 다쳤다.

화재사고와 안전사고도 속출했다.

29일 오전 11시23분께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인근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B(55)씨가 산악구조대에 구조됐다. 27일 밤 11시31분께 완도군 구내면 한 마을 앞 해상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20대 남성이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완도해경에 구조됐다.

같은 날 오후 3시9분께 광양시 광양읍 한 아파트 4층 A(여·54)씨 집에서 불이 나 아파트내부(56㎡)를 태우고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으며, 26일 오후 8시45분께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이모(여·43)씨의 주택에서 불이나 이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빛원전 방폐물 오늘 해상 운반 시범운항…어민들은 반발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을 해상으로 운반할 선박의 시범 운항이 30일 영광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월말 방폐물 운송에 앞서 한빛원전에서 경주 처분장까지의 해상 운송 통로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예고도 없이 10월말 첫 운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30일 한빛원전 앞바다에서 방폐물 운반 전용 선박인 한진 청정누리호(2600t)의 시범 운항을 진행한다.

시범 운항은 발전소에서 7㎞ 떨어진 해상에 대기 중인 청정누리호가 영해선 방향 15㎞ 해상까지 이동한 후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청정누리호 운항팀은 선박에 탑재된 수심 측정기와 전자해도 등을 이용해 수심과 암초 등 해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항로 안전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한빛원전의 방폐물 임시 저장고가 연내 포화 상태에 달해 방폐물 일부를 경주 처분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1986년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방폐물을 저장한 한빛원전 임시 저장고는 6월말 기준 98.4%(2만2936드럼)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빛원전 측은 조속히 임시 저장고를 비우지 않으면 원전 가동중단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방폐물 운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방폐물 첫 이송 일정에 맞춰 시범 운항을 강행하고 있다”며 “꽃게잡이 등 조업 일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희식(55) 영광군 자망어선협회 회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시범 운항만 하고서 실제로 방폐물을 실은 선박이 운항하다가 막상 사고라도 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선 원자력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은 “해상 이송에 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됐으며, 시범운항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또한 적절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은행서 피해자와 조우 ‘딱 걸렸네’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한 때 자신들의 꾐에 넘어가 피해를 본 30대 남성과 광주의 한 은행에서 맞닥뜨렸다가 경찰에 덜미.

○…2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유모(23)씨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광주은행 모 지점을 찾아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3400만원을 인출하던 중 “통장에 든 돈을 꾸준히 찾아주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한때 인출책 노릇을 했던 최모(36)씨에게 발각됐다는 것.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경찰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된 최씨는 이날 점포에 들어선 순간 유씨를 알아챘는데 때마침 인근에 있던 경찰이 출동, 일당 2명 검거는 물론 범행 도구로 쓰인 휴대전화와 인출된 현금 1350만원도 현장에서 회수.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융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융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융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융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융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융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융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⑤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융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전망좋음,임대완료 (융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⑦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융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⑧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융4천) → 매가 1억5천만
⑨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⑩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댐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 률 경 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1.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2.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3.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4.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5.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6. 광산수완(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9억
7.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8.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1.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4억→최저가2djr8cjs
2.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건물)
1.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2.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3.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4.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5.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6.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7. 광산구 쌍암동 (장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1.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2.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3.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062-382-5500/010-6832-97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